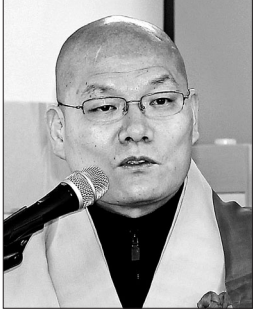


복지재단 · 생명나눔, 2016 신년계획

# 불교계 '복지 사각지대' 찾아 나선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 불교계 복지법인 '전수조사' 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교복지지도' 구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교복지 취약지역을 공략하는 한편, 지역별 안정적인 분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 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월 18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 총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의 2016년 총무기조는 '행림회춘(杏林回春), Forward 20'이다. '행림회춘'은 '살구나무 숲에 봄이 왔다'는 사자성어로,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올 한해 지난 20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도모할 것"이라며 "불교복지 성장과 변화, 미래를 위한 공덕의 씨앗을 심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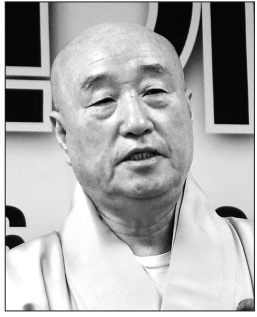
별 불교사회복지 성장 및 거점화 구축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전수조사 및 복지허브 기반 조성 △불교복지 고유정책 및 자원봉사 문화 형성 △조직체계 정비 및 직원 역량 강화 등 제시했다.

특히 조계종복지재단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전국 총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교복지지도'를 완성하고, 강성 또는 취약 지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취약 지역에 불교복지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불교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와 관련 보경 스님은 "상대적으로 서해안 벨트 권역과 호남 권역 불교복지 기반이 미약하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설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또한 보경 스님은 "올해는 재단 산하 시설 200개 돌파가 목표"라면서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교구분사 거점으로 삼아 지역별 배분 운영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교구분사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보경 스님은 지난해 조계종 복지재단과 타 종교 복지시설 활동을 비교하고,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에서 불교 복지 활동이 타 종교에 비해 접근성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의료·교육시설서 불교복지 역량을 확대키 위해 사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평가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 30개 사찰과 MOU... 스님 참여 독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누계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토대로 올해 보다 활발한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 5000명 추가 등록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다만 지난해 스님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00여 명에 그쳐 '스님 1000분 모시기'에는 난항을 겪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 사업결과 및 2016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4,73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는 2,500명, 각각 누계 50,501명과 35,727명을 달성했다. 특히 생명나눔은 "2015 전국 조혈모세포 기증자 300여 명 중 50여 명의 실기증을 이끈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명나눔은 2015년 신실한

생명의 씨앗들, 생명나눔명가, 착한릴레이 등 브랜드형 캠페인이 누적 5만 명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생명의 씨앗들'은 각 사찰 매일 정기법회마다 9명의 희망등록자를 모집해 12개월 동안 108명 등록을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413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고, 가족단위 장기기증 바로 알리기 운동인 '생명나눔명가' 캠페인을 통해서 총 60가족이 동참했다.

그러나 스님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00여 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생명나눔은 2014년부터 '스님 1000분 모시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재가자들에게 비해 스님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하다. 올해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스님들을 곳곳에서 찾아내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은 올해 캠페인 50회를 실시하고, 5000명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 추가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봉은사·농인선원·불광사 등 30개 사찰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생명나눔은 "사찰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강원들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스님 1000분 모시기 운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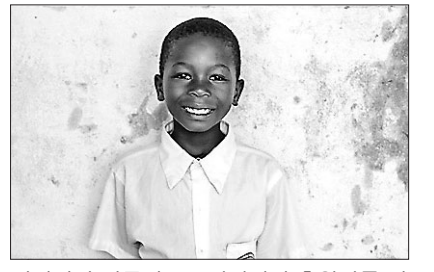
## "탄자니아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름다운동행, 1:1 결연사업 동참 호소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해외아동을 후원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동참을 요청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15년 7월부터 '탄자니아 해외아동 1:1 결연사업'을 본격 실시했으며, 12월까지 총 61명 아동들이 후원을 만났다.

아름다운동행은 "그동안 하루 한 끼 식사가 전부였던 아동들이 세끼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학비도 지원하고 있다. 탄자니아 아동들이 내일의 미래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동행은 "지원받는 아동 수가 늘어날수록 그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 된다. 후원금 일부는 책걸상 지원 등 아동들 교육사업, 마을 우물지원 사업 등에 이용되기 때문"이라면서 "아직도 150명 아동들이 후원을



탄자니아 아동이 1:1 결연사업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6년 입학하는 1학년 아이들 대상 가정방문도 앞두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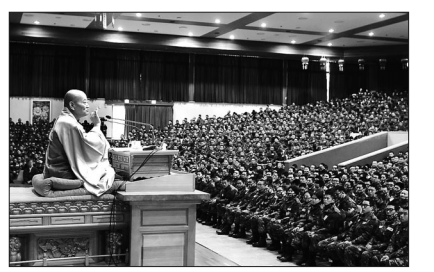
앞서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지부는 2014년 한부도·저소득 가정 아동들 대상 총 360여 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 도움이 필요한 220명 아동들을 선별했다. 후원금 매월 3만원, 후원계좌 301-0118-2190-11 농협 '박아름 기자

## 호국연무사 병신년 첫 수계법회

1월 16일, 3700여 장병 참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1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정우 스님을 계사로 불기2560년 병신년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 참석한 훈련장병 3700여 명은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이날 정우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근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된다"며 "군 불자로서 긍지를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법회에는 각원 허현구 공군본부



장병들에게 오계를 설하고 있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군종실장 등 군종 7명과 충남 포교사단 포교사 15명이 동참했다. 한편 호국연무사는 군불교 내 최대 전법도량이다. 지난해 전군 수계장병 11만6020명 중 호국연무사에서 계를 받은 장병만 5만6483명으로 약 48%에 달한다. 윤호섭 기자

##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성황리 폐막

고학년 이재원 군

저학년 김고은 양 대상

영어로 부처님 본생담을 공부,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불교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9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성료됐다. 대회에서는 이재원 군과 김고은 양이 각각 고학년·저학년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무대행 송묵)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가 주관하는 제9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을 풀어냈다. 참가자들은 △바람사슴과 꿀풀(The Wind-Deer and the Honey-Grass) △반얀나무의 탄생(The Birth of a Banyan Tree) △매추라기왕과 사냥꾼

(The Quail King and the Hunter) △선반나무(The Whatnot Tree) △검쟁이 토끼(The Foolish, Timid Rabbit) 등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부처님 본생담을 자

연스럽게 설명했다.

대회 결과 고학년부에서는 이재원(초6) 군이, 저학년부에서는 김고은(초4) 양이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직무대행 송묵 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 본생담과 관련 이야기들은 전래동화로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대장경을 암송해 오늘에 전해준 스님들처럼 자타카 암송대회에 참가한 여러분은 인류의 문화원형을 새롭게 배우고 전하는 주인공이기도 하다"면서 "더욱이 자타카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것은 불교발원은 물론이고 불교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조계종 포교원,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3월 5일 개강, 총 3개월 과정

조계종 신도교육제도 안착과 지도인력군 구축을 위한 중반 신도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3개월간 2016 신도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불교교리 및 소양(6강) △포교실천 역량(6강) △신행·교육 역량(6강) △조직실천지도 역량(6강)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매주 2강씩 진행된다. 교육방식은 '조계종 디지털대학' 온라인과정 및 수

강자 연수를 병행한다. 교육대상은 △전문포교사 3년 이상 △일반포교사 10년 이상 포교사단 추천자 △부동품계 품수 20년 이상 △신행활동경력 30년 이상 추천자 △선해품계 품수자 중 재교육 희망자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에 우편 또는 내방 접수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50만원이다.

제출서류는 수강신청서·추천서·신행활동 경력확인서·포교사 자격증 사본 등이다. 교육대상자는 2월 25일 발표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선해품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윤호섭 기자

#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승가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에 고대 인도의 교육방법인 인명논리학을 기초로 한 불교교육의 컨트롤 타워

◆모집인원 : 20명

◆대상 :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학비 : 연 100만원

◆입학식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정오

◆강사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 외 특강강사

◆교육과정 : 전문과정 : 2년, 연구과정 : 4년, 교수사과정 : 7년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 토요일 오전 3시간)

입학문의 : 010-8969-9444 (지암스님) / 010-7225-8426 (명혜스님)